

「서계이선생가장결(西溪李先生家藏訣)」의
비결서사 및 비결어 연구
: 소두무족(小頭無足)과 혈하궁신(穴下弓身)을 중심으로

최 종 성*

目 次

- I. 서론
- II. 비결 텍스트 분석
 - 1. 간지별 징후
 - 2. 논(論): 후예들을 향한 권고
- III. 비결어 분석
 - 1. 소두무족(小頭無足)과 흥(凶)
 - 2. 흥(凶)과 전(田)
- IV. 결론

I. 서론

현존하는 정감록의 전승은 대개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李)와 정(鄭)의 대담 형식으로 예언의 서사를 전개하는 감결(鑑訣)1)류의 문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규장각 소장본인 『秘訣輯錄』(奎7568)을 비롯해, 1923년 간행본인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본 『鄭鑑錄』(동경: 자유토구사, 1923), 현병주본 『非難鄭鑑錄眞本』(경성: 우문관서회,

현이고, 다른 하나가 도선, 무학, 남사고, 토정, 북창, 서산대사 등등의 걸출한 역사적 인물의 명성과 권위를 빌려 이름 붙인 비결²⁾류의 문헌이다. 전자가 좁은 의미의 정감록이라면, 여기에 후자를 더한 것이 넓은 의미의 정감록이라 할 수 있다.³⁾ 전승주체나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것은 단연 감결류의 문헌이었다. 물론 비결류의 문헌 중에서도 남사고류의 몇몇 전승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계(西溪)의 이름을 빌린 비결서들은 전승주체에거나 연구자들에게 아직 낯설고 생소한 편이다.

규장각본 『비결집록(秘訣輯錄)』(奎7568) 및 일본 동양문고본 『정감록(鄭鑑錄)』(VII-3-99)을 비롯해 1923년 경쟁적으로 출판된 4개의 정감록 간행본(호소이 하지메본, 김용주본, 야나기타 분지로본⁵⁾, 현병주본)에도 서계 이득윤(李得胤, 1553-1630)을 가탁한 「서계이선생가장결(西溪李先生家藏訣)」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득윤의 본관인 경주를 편명에 앞세운 또 다른 문헌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도 야나기타 분지로본을 제외한 간행본과 규장각본 및 동양문고본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⁶⁾ 그만큼 안정적으로 전승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서계류

1923), 김용주본 『鄭鑑錄』(鑑訣)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등의 경우 모두 수록 문헌 첫편으로 「鑑訣」을 싣고 있다.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본 『眞本鄭鑑錄』 (경성: 이문당, 1923)의 경우에는 「감결」편이 아닌 「鄭堪錄」편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감결류로 지칭한 것이다.

- 2) 남사고비결, 도선비결, 정북창비결 등등과 같이 인물명이나 비결을 붙여 편명을 삼은 문헌들을 염두에 두고 편의상 비결류라 지칭한 것이며, 이외에도 결(訣), 전(傳), 기(記), 법(法) 등등을 붙인 편명도 많아 일률적이지는 않다.
- 3) 정감록이라는 말이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18세기 전반기 이래로 정감록은 전자의 문헌만을 지칭하는 제한적인 말이었지만, 20세기 전반기에 비결문헌이 결집·출판되면서 정감록은 전자와 후자의 문헌을 총괄하는 말로 이해되었다.
- 4) 남사고의 전승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진희,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 『한국문화』 92 (2020): 197-227; 「‘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 『한국문화』 94 (2021): 251-290.
- 5) 야나기타 분지로본의 「鄭堪錄」편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최중성,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의 검토: 〈정감록(鄭堪錄) 편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40 (2022): 1-26.
- 6) 영역본 정감록을 낸 John Jorgensen은 「서계이선생가장결」과 「경주이선생가장결」을 “Predictions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ŏ’gye”와 “Predictions Hidden in the House of Mr. Yi of Kyŏngju”로 각각 번역하였다. John Jorgensen,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ŏ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Honolulu:

의 비결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본고에서 서계류의 비결문헌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단순히 왕조의 교체시기를 암시하거나 피장처의 지리적 공간을 제시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위기시스템과 그것의 극복시스템의 구조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한 구조하에서 궁궁(弓弓) 혹은 궁을(弓乙)로 대표되는 길지의 이상적인 지향과 더불어 재앙과 위기의 소이연으로 지목되는 소두무족(小頭無足)을 대비시키는 서사의 전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학을 비롯한 신종교 전통에서 비결의 전승을 우주론과 도덕론의 맥락으로 전유하며 종교적인 윤색과 변형을 가하는 원천으로 활용했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될 만하다.

서계 이득윤을 내세운 「서계이선생가장결」과 「경주이선생가장결」은 서로 통하는 면도 있지만, 성격과 지향을 달리하는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서계이선생가장결」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경주이선생가장결」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선, 「경주이선생가장결」의 주요 서사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고, 비결의 핵심을 담고 있는 비결어의 의미와 잠재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II. 비결 텍스트 분석

현존하는 정감록류의 필사본과 간행본은 후반부에 「서계이선생가장결」과 「경주이선생가장결」을 수록하고 있다(부록① 참조). [표1]에서 보듯이, 특히 「서계이선생가장결」은 규장각 소장 필사본인 『비결집록』과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인 『정감록』 이외에 1923년의 간행본 4권 모두에 동일한 편명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표기상으로도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교토대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필사본인 『정감록(鄭鑑錄)』(テ-4 199718)의 경우에는 편명이 「이서계선생비기(李西溪先生秘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몇 군데를 제외하

고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편명	西溪李先生家藏訣	李西溪先生秘記
수록문헌	秘訣輯錄 (奎章閣) 鄭鑑錄 (東洋文庫) 鄭鑑錄 (細井肇) 鄭鑑錄(鑑訣) ⁷⁾ (金龍柱) 批難鄭鑑錄眞本 (玄丙周) 眞本鄭堪錄 (柳田文治郎)	鄭鑑錄 (河合文庫)

[표1] 「서계이선생가장결」 수록문헌

「서계이선생가장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첫째, 전반부는 간지별로 당해년의 징후와 운수를 짚막하게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임술년부터 임진·계사년까지 15개 항목으로 간지별 운수가 제시된다. 둘째, 후반부는 논(論)이라는 부제를 달고, 다가올 변동기에 대처할 만한 방도와 요령을 후예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차 직면하게 될 위기의 유형과 극복의 대안을 기호화한 비결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간지별 서술과 논(論)에 관한 텍스트 분석은 규장각본 『비결집록』의 원문을 중심에 두고 여타 이본과의 비교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이본 간의 세부적인 비교 내용은 논문 말미의 부록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간지별 징후

먼저, 「서계이선생가장결」의 전반부는 [표2]에서 보듯이, 15개 항의 간지별 징후

7) 김용주본 『鄭鑑錄』은 《징비록》, 《운기귀책》, 《요람역세》, 《동세기》, 《동차결》, 《감결》, 《감인록》 등 7서(七書)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감결》에 「서계이선생가장결」이 수록되어 있다.

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와이문고본과 같이 직접 간지를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오행의 색깔 상징으로 천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간지를 표기하였고, 제시된 간지마다 8자 내지 16자 분량의 예언내용을 덧붙여 서술했다. 15개 항 열여섯 해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때의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직접 대입시킬 수 있을 만큼 유추 가능한 것도 있다.

간지	원문	번역
壬戌	以火民撓 先自湖南	① 임술년: 불로 인한 민심의 소요가 호남에서 먼저 시작되리라.
靑鼠	野杏接木 旧闕重修	② 갑자년: 개살구를 나무에 접붙이듯 옛 궁궐을 중수하리라.
赤廂	異人南來 一境騷動 似倭非倭 以和為主	③ 병인년: 이인이 남쪽에서 오니 온 지경에 소동이 일 것이다. 왜인인 듯 아닌 듯한 자들이 화친을 주장하리라.
赤鼠	嘆氣太甚 人民多死	④ 병자년: 가뭄의 기세가 너무 심해 많은 백성이 죽으리라.
黑馬	馬馳長走 六白八黑 西戌其月 天將西來	⑤ 임오년: 말들이 길게 줄지어 달려가는데 여섯 마리는 희고 여덟 마리는 검은리라. 8월과 9월에 천장(중국의 장수)이 서쪽에서 들어오리라.
黑羊	汾水秋風 旌旗日暖 忠宣忠惠 何事走鼠	⑥ 계미년: 분수에 가을 바람이 불고 ⁸⁾ 깃발엔 햇볕이 따사로우리라. 충선 왕과 충혜왕이 무슨 일로 쫓겨 달아났는가?
靑猿	寅卯辰巳 長城崩頽 兼之以兵 哀歎蒼生	⑦ 갑신년: 인, 묘, 진, 사 연간에 장성이 붕괴되고 병사가 둘러싸니 창생들이 애저롭도다!
靑鷄	千里江山 三分何為	⑧ 을유년: 천리의 강산이 셋으로 나뉘니 어찌하랴!
赤狗	英雄相爭 風風雨雨 緣此時交 失農可畏	⑨ 병술년: 영웅이 서로 다투고 비바람도 거세지리라. 이로 인해 시후도 변하니 농사의 때를 잃을까 두렵도다.
赤猿	樛燕負薪 魴魚赤尾	⑩ 병신년: 들보에 앉은 제비는 썩을 짊어지고 방어의 꼬리가 붉어지리라.
黃鼠	年來之歉 猶年不足	⑪ 무자년: 해마다 흉년이 드는데 연년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리라.
黃牛	世事擾擾 死亡頗多	⑫ 기축년: 세상일이 소란하니 죽는 이가 엄청나리라.
白廂	禍被喬木 有誰獻忠	⑬ 경인년: 큰 나무도 화를 당하니 그 누가 충성을 바치리오.
白兔	大中小魚 俱亡無婦	⑭ 신묘년: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죄다 죽어 돌아오지 못하리라.
黑龍 玄蛇	靑衣白衣 並出東南	⑮ 임진년·계사년: 푸른 옷과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동남으로 나오리라.

[표2] 「서계이선생가장결」(규장각본)의 간지별 징후 내용

8) 한무제가 분수에서 후토신에게 제사한 후 가을바람을 맞은 감응을 추풍사(秋風辭)로 표

뒤에 이어지는 논(論)의 내용이 17세기 후반의 경신대기근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간지별 징후담은 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우선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이 마지막 ⑮항의 임진년과 계사년의 내용이다. 푸른 옷을 동쪽의 왜군으로, 흰 옷을 서쪽의 원정 명군으로 유추해보자면 왜란이 발발한 임진년(1592)과 그 이듬해인 계사년(1593)의 전란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 해 단위로 기술한 여느 항과 달리, 임진년과 계사년을 한데 묶어 기록한 것만 봐도 연년이 이어진 왜란의 전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짐작된다. 마지막 항을 16세기 임진·계사의 왜란으로 읽는다면, ⑫항의 기축년은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옥사가 있었던 해(1589)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급하다 보면 ①항의 임술년은 명화적 임격정(林巨正)의 활동이 종료되는 명종 17년(1562)으로 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시점을 300년 뒤로 미뤄본다면 ①항의 임술년은 삼남의 민란이 분출한 1862년의 상황으로 읽을 수 있으며, ②항의 갑자년(1864)에 중수하고자 한 구궐(舊闕)은 임진왜란 때에 소실된 이래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경복궁이 될 수도 있다. ③항에서 화친을 맺고자 하는, 왜인인 듯하면서도 왜인이 아닌 주체는 다름 아닌 병인년(1866)의 서양인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 ④항에서 언급된 가뭄은 역대급 가뭄으로 여겨지는 병자년(1876)의 대가뭄으로 읽어낼 수 있으며,⁹⁾ ⑤항의 내용은 임오년(1882)의 군란으로 인한 청군의 개입 상황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비결 텍스트의 특성상 해석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기 마련이다. 위에서 간단히 지적해 보았듯이, 간지별 징후담은 16세기 후반 30년의 상황으로도 19세기 후반의 그것으로도 읽힐 여지가 다분하였다. 독법에 따라 본 텍스트의 생성 및 진승 시기에 대해서도 가능해볼 수 있겠지만,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다만, 이어

현한 바 있다.

9) 매천(梅泉) 황현(黃玿, 1855-1910)의 저작에서도 병자년(1876)의 대홍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황현, 『매천야록』, 김준 옮김(서울: 교문사, 1994), 65]. 아울러 규장각 소장자료인 『祈雨祭騰錄』(奎12901)을 통해 당시 4월부터 너 달간 각종 기우제를 비롯한 별기우제 및 친행기우제가 빈번하게 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는 논(論)의 서사가 첫머리에 임진년의 위기를 언급하며 그보다 훨씬 심각한 17세기 대기근의 재앙을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거론한 간지별 징후들은 왜란의 참화로 종결되는 16세기 후반부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텍스트의 연속적인 맥락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30년에 걸쳐 여러 재앙적 요소가 거론되고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④, ⑨, ⑪항에서 확인되듯이, 가뭄과 흉년으로 인한 실농(失農)과 집단적인 죽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는 전쟁이나 반란보다는 흉년과 기근의 대재앙을 서사의 중심에 두고 있는 서계류의 비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 논(論): 후예들을 향한 권고

『서계이선생가장결』의 후반부 논(論)의 내용을 살펴보자. 논의 내용은 다가올 위기에 대처할 방도를 후예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논의 전문을 차례로 검토하되,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1) 흉년의 예고-길지의 지향

시변을 논한다면 임진년보다 심하리라. 진인이 남쪽으로 건너가 하늘의 분부를 받들어 따르리라. **술년**과 **해년**에 계룡산에서 일어나 인년, 묘년, 진년에 왜인의 지경을 통일하리라. 이때로부터 정씨의 운이 크게 통하고, 갑진년과 을사년에 문물이 훌륭하게 발하리라. 대운을 논하자면 80년간의 난리이고, 햇수를 들어 논하자면 24년간이 되리라. 소운을 논하자면 20년간의 전쟁, 9년간의 흉년, 7년간의 흉수, 3년간의 전염병 등으로 인해 10가구당 1가구만이 남으리라. 기이한 세상의 재난이로다! **균병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며, 가뭄이 아니라면 흉수이고, 흉년이 아니면 역병이리니**, 나의 후예들은 길지를 찾아 떠나야 하리라.¹⁰⁾

10) 『秘訣輯錄』(奎7568), 『西溪李先生家藏訣』. “論其時變 甚於壬辰 真人渡南 順受天分 戊亥之年 鷄龍岑興 寅卯辰歲 統一倭境 自此以後 鄭運通泰 甲辰乙巳 文物彬興 論其大運 八十年亂, 舉數論之 二十四年 論其小運 二十年兵 九年之歉 七年之水 三年病疫 十戶餘一 異狀世難 非兵非刃 非旱則水 非凶則病 惟我後裔 往尋吉地”.

먼저, 정씨 남도진인설을 전제로 이-정 교체기의 징조와 햇수를 논의하고 있는데, 수치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느 비결문헌과 크게 다름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운수의 교체기를 암시하는 재난은 임진년의 병화(兵火)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장차 닥칠 재앙은 군병과 무기로 대변되는 전쟁의 위협이 아닌, 흉년(가뭄, 홍수)과 흉병(역병)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문두에 제시된 술해지년(戊亥之年), 즉 술년과 해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흉년과 관계된 특정 시기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경신대기근으로 불리며 많은 사망자를 냈던 1670년(경술)과 1671년(신해)이 바로 거론한 술해지년일 가능성이 높다. 경신대기근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엔보대기근(延寶大饑饉, 1674-1677)이 발발할 정도로 당시 저온 현상으로 인한 냉해와 흉작이 동아시아를 강타하였고, 기근이 불러온 집단적인 불행과 사회상의 변동도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¹¹⁾ 결국,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십분의 일만이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의 조건이 기다리는 길지를 찾아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길지는 다른 무엇보다 흉년의 극복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간주될 만하였다.

2) 소두무족-혈하공신

길지와 길운은 전이든 후든 언제나 일치하리라. 소의 본성은 들에 있으니 그 이로운 발에 미치리라.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인가, 소두무족이로다. 나를 살리는 건 가난, 즉 혈하공신이로다. 별들이 비치는 곳은 도탄을 면하리라. 산동과 삼남에 복덕성이 두루 비치리라. 신년과 유년의 가뭄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련만, 술년과 해년의 흉년은 면하기 어려우리라. 다른 이들이 버릴 때 나는 취하고, 다른 이들이 떠나면 나는 머무르리라.¹²⁾

11) 경신대기근을 둘러싼 재해상황과 변동에 대해서는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2011): 71-129 ; 이준호·이상임, 「조선시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과 공옥(空獄) 사상의 교정적 의미 고찰 -소빙기 '경신대기근'을 사례로」, 『교정담론』 11 (2017): 269-296.

12) 『秘訣輯錄』(奎7568), 『西溪李先生家藏訣』. “吉地吉運 前後一規 牛牲在野 利及田田 殺我

위의 인용문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비결어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단락이다. 먼저, 길지를 찾아 떠나는 후예들에게 언제나 통할 수 있는 대원칙으로서 우성재야(牛性在野)와 이급전전(利及田田)이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 재앙의 위기로 지목한 흉년과 기근을 떠올린다면 그것의 극복논리로서 밭(田)과 들(野)과 소(牛)의 이미지는 쉽게 납득이 될 만하다. 여기에서 말한 이급전전은 이상화된 길지로 간주되는 이재전전(利在田田)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는 이재송송(利在松松)과 이재가가(利在家家)를 거친 이후 길지의 최종적 대안으로 주목받은 비결어라 할 수 있다.

둘째, 파자와 이미론적 추론이 가미된 비결어로서 소두무족(小頭無足)과 혈하궁신(穴下弓身)이 각각 죽음의 조건과 삶의 조건으로 제시된다. 일단 파자의 방식으로 보자면, 혈하궁신은 혈(穴) 자 아래에 몸(身)과 활(弓)을 결합한, 곤궁을 뜻하는 ‘궁(窮)’으로 쉽게 유추된다. 본문에서도 빈(貧)과 혈하궁신(窮)을 동격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소두무족에 있다. 지금까지 소두무족에 대해 분분한 해석들이 가해졌지만, 파자의 형식으로 보자면 첫째, 상흑지인(尙黑之人), 즉 상(尙)과 흑(黑)이 결합된, 무리를 뜻하는 ‘당(黨)’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¹³⁾ 그러나 의미상 매끄럽게 상통하지 않을뿐더러 파자의 원리로도 소두(小頭)와 무족(無足)의 형태를 정밀하게 분간해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두 번째로 『격암유록』의 진승에서 보듯이, 소두무족을 ‘나는 불(飛火)’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파자의 논리로 보자면, 소(小) 자의 뾰족한 머리(丿)와 무(無)자의 다리(乚)를 결합시켜 불을 내뿜는 미사일의 비행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 이미지는 17세기 기근을 당대의 위기로 받아들이던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볼 때 그대로 적용시키기 곤란하다. 소두무족의 파자와 의미의 분석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문맥상 경신대기근의

者誰 小頭無足 活我者貧 穴下弓身 星辰所照 可免塗炭 山東三南 福星遍照 申酉之旱 猶可免也 戊亥之凶 亦不可免 人棄我取 人去我留”.

13) 柳田文治郎, 『眞本鄭堪錄』, 「諸訣解」(경성: 이문당, 1923), 34b.; 『蕉菴訣』, 「西溪訣辛」, (안춘근 편, 『정감록집성』(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191). “小頭無足者, 尙黑之人也.”.

상황을 염두에 둔 소두무족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셋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소두무족과 흉년과의 연관성은 경신대기근, 곧 술해지흉(戊亥之凶)으로 더욱 강화된다. 술해지흉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경술년(1670)과 신해년(1671)의 흉년으로서 그보다 1~2년 전에 겪었던 신유지한(申酉之旱), 즉 무신년(1668)과 기유년(1669)의 가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죽음의 악조건이었다. 면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삶을 보장할 만한 예외적인 조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들의 의견을 따르거나 대세에 휩쓸리는 선택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취함과 버림, 머뭇과 떠남을 소신껏 판단해야 했다. 남이 버릴 때 취하고, 남이 떠날 때 머뭇다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3) 충청의 길지

속리산 시루목이 길하다면 길할 것이리라. 먼저 들어가면 죽고 뒤에 들어가면 살리라. 왜 하필 시루목일까, 근처의 땅도 괜찮으리라. 산선지간(山仙之間)에는 기근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작은 산 작은 계곡으로 종적을 감추고 지명이 어떠한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면 협자촌을 찾아가라. 팔물이 잘 자라 사람의 구명을 도우리라. 만약 생존한다면 돌아와서 다음으로 **유마(유구와 마곡)**를 찾으라. **황영지간(황간 영동 사이)**에는 많은 인가들이 깃들어 살 만하리라. **청주 남쪽과 문의 북쪽**도 자취를 감추고 살 만하리라. **옥천과 진잠**에는 왕왕 별이 비치리라.¹⁴⁾

이 단락은 대기근을 피해 들어가 살 만한 길지의 목록을 제시한다. 속리산의 시루목, 유구와 마곡, 황간과 영동, 청주와 문의, 옥천과 진잠 등 기근이 들지 않

14) 『秘訣輯錄』(奎7568), 『西溪李先生家藏訣』. “俗離飢項, 吉則吉矣. 先亡後生, 後入最可. 何必飢項, 近地亦可. 山仙之間, 飢饉不入. 小山小溪, 藏踪何如. 若入其地, 依字村尋, 八物長生, 扶人救命. 有生則還, 次問維麻. 黃永之間, 可活萬家. 清南文北, 亦可藏踪. 沃川鎮岑, 星照往往.”

는 피장처들로 거론된 곳이 예외 없이 충청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산선지간(山仙之間)’이 신선이 거할 만한 산속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황영지간(黃永之間)처럼 두 지명을 병합한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후예들로 하여금 흉년을 대비해 길지를 찾으라며 제시한 곳이 충청권의 지역이라면, 서계 이득윤이 청주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했던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계의 직접적인 저작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충청권의 공간담론을 전승하는 지역의 주체들에게 지역 출신의 학자를 가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도 꺼릴 만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4) 부귀와 빈천

이런 세상을 만나면 **지아비는 밭 같고 지어미는 길쌈하며**, 벼슬길에 나가지 말고 부지런히 **농사에 힘써**, 스스로 살길을 마련하되 결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리라. 집은 반드시 짓겠지마는 가산은 지극히 빈한해지리라. **빈자가 무슨 두려움이 있으리오.** 가는 곳마다 모두 왕성해지리라. 입산하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어찌 **길가만** 하리오. 동산이 아무리 좋다 한들 어찌 좋은 **밭만** 하리오. **밭이로다! 밭이로다! 밭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만 알리라.** 첫째가는 것이 **밥이니**, 그런 연후에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빈한을 피롭다 하지 말며 부를 쫓아가지 마라. 부유하면 대부분 죽으리니**, 재앙이 닥칠까 두렵노라. 그 이치를 모르고 부를 쫓기가 쉬우리라. 대략 다가올 일들을 진술해서 후생을 깨우치고자 하니, 이에 한마음으로 따르라. 【선생이 사기막에 거하였는데,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최씨가 찾아와 말하기를, “임진년의 화는 피할 수 있으나 그 뒤 2백 여년 후에는 반드시 큰 대란이 있을 것이니, 대강의 조목을 나열해 후대에 남겨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그대가 스스로 말해보라” 고 하였다.】¹⁵⁾

15) 『秘訣輯錄』(奎7568), 『西溪李先生家藏訣』. “當此之世, 夫耕婦織, 勿爲仕宦, 勤力農業, 自生之道, 勿爲自棄. 宅必生耳, 產必至貧. 貧者何畏, 往處皆旺. 入山雖好, 何如路傍. 東山雖好, 何似良田. 田兮田兮, 知者知矣. 一曰食也, 然後可生. 莫苦貧寒, 勿從富去. 富則多死, 橫罹可畏. 不識其理, 追富亦易. 畧陳來事, 以曉後生, 一念在茲, 湏從此示. 【先生居於沙器幕矣. 其隣居崔生來言曰, ‘壬辰之禍可避, 而此後二百餘年, 必有大難, 畧條列以遺後如何?’ 先生曰, ‘汝自言之.’ 云云.】”

먼저, 문미에 서계선생과 인근의 최씨가 나는 짝막한 대화가 보주 형식으로 첨부된 데 반해, 가와이문고본 「이서계선생비기」의 경우에는 다소 변형된 형태의 문장이 문두에 배치되어 있다.¹⁶⁾ 본문 마지막 단락에 이르러,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부귀와 빈천의 대비이다. 길지를 찾아 받을 일귀가며 빈한하지만, 욕심 없이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소박한 농부의 삶이, 소두무족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다. 흉년을 이길 힘은 부귀와 영달이 아닌 혈하궁신의 곤궁함이다. 가난이 생을 보증하고 부귀가 죽음을 불러온다는, 소위 부사빈생(富死貧生)의 역설이 통용되는 상황이라면, 부귀와 소두무족은 의미론적인 일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富)와 소두무족 사이에 파자의 추론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사의 의미론적 맥락상 상통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비결어의 분석

앞서 「서계이선생가장결」의 전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서계이선생가장결」이 경신대기근의 재앙을 염두에 둔 비결전승이라는 점이었다. 생사의 조건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비결어로서 소두무족과 혈하궁신이 대비되었고, 부귀와 빈천의 조건이 두 비결어의 맥락과 상통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혈하궁신에 비해 소두무족의 파자적 접근과 의미의 맥락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었다. 본장에서는 먼저, 「서계이선생가장결」의 이본간 비교를 통해 소두무족의 파자를 추론해볼 것이고 둘째, 「이서계선생비기」라는 별도의 서계류 비결서를 참고하여 소두무족을 둘러싼 비결어의 연합 구조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16) 『鄭鑑錄』(교토대 가와이문고, ㄱ-4 199718) 「李西溪先生秘記」. “先生居息於沙器幕矣. 其隣崔生來言曰, 壬辰之禍可避也. 此後二百年後, 必有大亂, 畧條其事以遺其後生如何. 先生曰, 汝自言之. 曰云. 已上不錄遺之矣.”

1. 소두무족(小頭無足)과 흉(凶)

소두무족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두무족의 구절을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본 간의 차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계이선생가장결』은 이본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승되어 왔지만, 소두무족 및 혈하궁신의 대구를 이루고 있는 16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다룬 규장각본 『비결집록』의 경우에는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인가, 소두무족이로다. 나를 살리는 건 가난, 곧 혈하궁신이로다.”로 되어 있지만, [표3]에서 보듯이 이본들을 통해 세 가지 형태의 전승을 확인할 수 있다.

야나기타 분지로본, 현병주본	殺我者誰 小頭無足 活我者誰 穴下弓身
규장각본, 동양문고본, 호소이 하지메본, 김용주본	殺我者誰 小頭無足 活我者貧 穴下弓身
가와이문고본	殺我者凶 小頭無足 活我者貧 穴下弓身

[표3] 소두무족-혈하궁신 16자의 전승

첫 번째 유형은 묻고 답하는 형식의 문장이 되도록 1구와 3구에 모두 ‘누구’ 혹은 ‘무엇’을 뜻하는 의문사 수(誰)를 활용하고 있다.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인가, 소두무족이로다.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 혈하궁신이로다.(殺我者誰 小頭無足 活我者誰 穴下弓身)”에서 보듯이, 본문은 1문 1답의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균형 있는 대구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앞 구절은 1문 1답의 형식을 취하되, 뒤 구절은 1문에 2답을 내리는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나를 죽이는 게 무엇인가, 소두무족이로다. 나를 살리는 건 가난, 즉 혈하궁신이로다.(殺我者誰 小頭無足 活我者貧 穴下弓身)”에서 보듯이, 혈하궁신(窮)은 가난(貧)과 동격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소두무족의 경우에는 연계의 대상이 비어 있다. 혈하궁신은 의미가 보다 명료해지고 강화된 반면,

소두무족은 여전히 파자의 추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유형은 교토대 가와이문고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고 1문 2답의 구조를 반복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나를 죽이는 건 흉년, 즉 소두무족이로다. 나를 살리는 건 가난, 즉 혈하궁신이로다.(殺我者凶 小頭無足 活我者誰 穴下弓身)”에서 보듯이, 혈하궁신과 빈(貧)의 동격관계가 소두무족과 흉(凶)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된다. 텍스트에 전제된 경신대 기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죽음의 조건인 소두무족과 흉의 결합은 자연스럽고, 위기 극복의 기호로 환기된 밭(田), 들(野), 소(牛)의 이미지와도 대조된다고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는 소두무족을 파자의 논리로만 밝혀낼 수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은 흉을 죽음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파자의 추론을 통해 소두무족과 흉(凶)을 상통시키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분분했던 소두무족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두무족의 소두(小頭)를 작은 머리, 곧 소아의 머리로 이해하고, 유아의 뇌나 정수리를 뜻하는 ‘신(凶)’ 자에 주목해보자. 이는 글자 형태상 흉(凶)의 속자인 ‘凶’이나 동자인 ‘兂’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무족(無足)을 발이 없다는 의미로 보고, 두 흉자(凶, 兂) 중에서 발(儿)이 없는 ‘凶’자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두 글자의 뜻이 흉(凶)과 동일하므로 발이 있든 없든, 즉 소두무족(凶)이든 소두유족(兂)이든 흉년을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소두무족을 흉으로 파자하는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가와이문고본의 문헌적 증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흉(凶)과 전(田)의 대비

가와이문고본의 문헌적 증거와 파자의 추론에 입각해, 소두무족과 혈하궁신의 조합이 흉과 빈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앙은 일회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성격을 달리하며 위기의 시대를 구분짓기도 하였다. 적어도 조선후기의 경험에서 주목된 핵심적 위기는 ‘왜(倭)-호(胡)-흉(凶)’의 흐름에서 이해되었고, 그러한 재앙을 이겨내는 기호로 ‘송(松)-가(家)-전(田)’의 맥락이 주목

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소두무족과 혈하공신은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생사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계류의 또 다른 비결전승인 「경주이선생가장결」은 인용의 형식을 빌려 세 단계의 위기와 극복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참서에 이르기를, “이씨의 운은 세 가지 비밀스런 글자, 송(松)·가(家)·전(田)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것을 풀어 말하기를, “송(松)은 왜(倭)를 극복하는 첫 번째 이로움이고, 가(家)는 오랑캐(胡)를 극복하는 중간의 이로움이며, 전(田)은 흉(凶)을 극복하는 마지막의 이로움이다. 흉이라는 것은 병기(兵器)와 통하는데, 병기라는 것은 곧 흉년을 말한다.”고 한다.¹⁷⁾

위 내용은 「경주이선생가장결」뿐만 아니라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의 본문에서도 같은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이조의 운명을 가를 만한 세 가지 비밀의 언어로 ‘송(松)-가(家)-전(田)’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왜(倭)-호(胡)-흉(凶)’의 재앙을 극복하는 데 이로움을 주는 표상으로 간주된다. 사실, 「경주이선생가장결」의 ‘송(松)-가(家)-전(田)’과 ‘왜(倭)-호(胡)-흉(凶)’의 구조는 동양문고본 『참서유취(讖書類聚)』(VII-3-114) 「정옹비결(鄭翁秘訣)」 편이나 아나기타 분지로본 『진본정감록(眞本鄭堪錄)』 「정유문답(鄭柳問答)」 편에서 확인되는 ‘송(松)-가(家)-궁(窮)’과 ‘왜(倭)-설(雪)-소두무족(小頭無足)’의 구조를 대신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비결구조를 종합해서 도표화한 것이 [표4]이다.

단계	이로움		해로움		길지의 상징
1	松	十八公	倭	禾人有女	利在宋宋
2	家	豕着冠	胡(雪)	雨下橫山	利在哥哥
3	田(窮)	穴身弓	凶	小頭無足	利在全全(利在弓弓)

[표4] 「경주이선생가장결」의 비결구조

17) 『秘訣輯錄』(奎7568), 「慶州李先生家藏訣」. “讖曰, 李氏之運, 有三秘字, 松家田三字. 解曰, 松先利於倭, 家中利於胡. 田末利於凶. 凶兵器也, 兵器曰, 歎也.”

먼저, 1단계의 송(松)과 왜(倭)의 관계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지하다시피 1차 위기인 왜(倭)는 파자의 형식을 빌린 ‘화인유녀(禾人有女 → 倭)’라는 비결어로 통용되기도 한다. 그것을 극복하는 기호로 이어송(李如松)의 송(松) 자가 주목을 받았으며, 십팔공(十八公 → 松)이라는 상투화된 비결어가 송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흔히 이재송송(利在松松)이니 동일한 발음의 이재송송(利在宋宋)이니 하는 표현들이 이상적인 길지를 상징하는 비결어로 통용되었다.

둘째, 2단계의 가(家)와 호(胡)의 관계는 병자호란의 역사적 경험과 맞물린다. 혹독한 겨울철에 겪었던 병자호란의 재앙은 전쟁 자체보다는 집 밖에서 조우한 기상 악화, 특히 눈(雪)에 의한 피해와 직접 연관되므로 호(胡) 대신 설(雪)로 대체되기도 한다. 기상으로 인한 재앙을 겪지 않으려면 집 안에 머무는 게 상책이었다. 재앙의 기호인 설(雪)은 우하횡산(雨下橫山 → 雪)으로, 극복의 기호인 가(家)는 시착관(豕着冠 → 家)으로 각각 이해된다. 결국 가를 포착하고 있는 이재가가(利在家家)나 동일 발음의 이재가가(利在哥哥)가 이상적인 비결어로 자리잡게 된다.

셋째, 3단계의 전(田)과 흉(凶)의 관계는 17세기 후반의 경신대기근의 역사적 경험과 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흉은 파자의 원리로 비취볼 때 소두무족(小頭無足)과 연계될 수 있으며, 그것을 타개할 만한 길지는 소나무가 있는 산도 아니고, 처마가 있는 집도 아닌, 들의 밭(田)과 관련되었다. 밭을 주목하고 있는 이재전전(利在田田)이나 이재전전(利在全全)은 이러한 범주를 대표하는 비결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재전전과 함께 이재궁궁(利在弓弓)도 3단계의 길지를 대표하는 비결어로 폭넓게 활용되는데, 이는 소두무족과 상대되는 극복의 기호인 혈하궁신(窮)과 동일 발음의 궁(弓)이 주목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두무족의 동의어인 흉(小頭無足 → 凶)에 입각하자면 이재전전이, 소두무족의 상대어인 혈하궁신에 입각하자면 이재궁궁이 3단계의 비결어로 지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경주이선생가장결」은 전자에 초점을 맞춘 전승이라 할 수 있

다. 사실, 이재궁궁과 이재전전은 제3의 대안으로 동일시되기도 하였고, 20세기 전반의 신종교 전통에서는 궁궁(弓弓)과 전전(田田)을 수렴한 아(亞) 자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¹⁸⁾

결국 소두무족은 ‘왜(倭)-호(胡)-흉(凶)’ 혹은 ‘왜(倭)-설(雪)-흉(凶)’이라는 위기의 흐름 속에서 흉의 의미를 공유하며 제3의 위기를 대표하는 용어로 자리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화인유녀(禾人有女)-우하횡산(雨下橫山)-소두무족(小頭無足)’이라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은 ‘왜(倭)-호(胡)-흉(凶)’이라는 위기의 언어로 표출되었고, 그러한 위기의 언어들은 ‘송(松)-가(家)-전(田)’이라는 극복의 언어를 희망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긴장 속에서 당면할 재앙을 직시하도록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서계류의 비결문헌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승이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서계이선생가장결」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비결어에 주목해보았다. 비결어의 구조적 이해를 위해 또 다른 서계류의 문헌인 「경주이선생가장결」을 참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주요한 사실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첫째, 「서계이선생가장결」의 비결전승은 감결류의 문헌에서 보이는 왕조의 흥망, 지세와 국도의 흐름, 국운의 교체시기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러한 전환기를 맞는 소박한 일반 민중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탈정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둘째, 「서계이선생가장결」은 이-정 교체기를 암시하는 재앙으로서 흉년과 기

18) ‘亞’는 형태상 ‘弓弓’을 선대칭으로 배치한 문자로도, ‘田田’을 방불케 하는 문자로도 이해되었다. 「弓乙信和歌」나 「弓乙十勝歌」를 비롯한 상주 동학교본부의 가사전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궁궁과 이재전전의 공통기반과 차별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양자간의 접목 지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근을 전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위 술해지흉(戊亥之凶)으로 언표된 경신대기근, 곧 경술년(1670)과 신해년(1671)의 역사적 불행이 예언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 고리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이어 당면한 재앙적 요소로 떠오른 흉년과 흉역의 경험이 얼마나 17세기 후반의 삶을 짓눌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서계이선생가장결」은 소두무족과 혈하궁신의 비결어를 대비시키면서, 흉년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밭(田), 들(野), 소(牛) 등을 기호화한 길지를 지향하도록 안내한다. 공간적으로는 충청권의 공간을 내세우면서도 그곳에서 부귀를 추구하기보다는 소박하고 빈궁한 농부의 삶을 이상화하고 있다.

넷째, 그간 해석이 분분했던 소두무족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흉(凶)의 서사를 담고 있는 「서계이선생가장결」과 「경주이선생가장결」의 텍스트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계이선생가장결」의 이본 비교를 통해 소두무족이 흉과 동격의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주이선생가장결」이라는 서계류 문헌의 참조를 통해 ‘왜(倭)-호(胡)-흉(凶)’이라는 재앙의 구조가 ‘왜(倭)-설(雪)-소두무족(小頭無足)’의 흐름과 포개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자의 방식을 통해 흉(凶) 자가 소두무족의 두 조건(小頭와 無足)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계류의 비결문헌이 담고 있는 길지의 이상(궁궁, 궁을)과 더불어 재앙의 원천으로 지목되는 소두무족의 대비가 여타의 정감록 문헌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접목되는지에 대한 문헌적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비결어 전승이 동학을 비롯한 한국의 신종교 전통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추적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서계류의 비결전승이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주제어 : 예언, 서계, 서계이선생가장결, 정감록, 소두무족, 혈하궁신

투 고 일: 2023. 11. 01.

심사종료일: 2023. 11. 22.

게재확정일: 2023. 11. 24.

부록

① 정감록의 비결문헌 수록 현황

秘訣輯錄 (奎7568)	鄭鑑錄 ¹⁹⁾ (細井肇)	鄭鑑錄(鑑訣) ²⁰⁾ (金龍柱)	批難鄭鑑錄眞本 (玄丙周)	鄭堪錄 (柳田文治郎)
鑑訣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歷代王都本宮數 三韓山林秘記 無學傳 五百論史 五百論史秘記 道宣秘訣 鄭北窓秘訣 南師古秘訣 南敬菴山水十勝保身之地 西山大師秘訣 杜師聰秘訣 避藏處 華岳路程記 北頭流路程記 九宮變數法 玉龍子記 慶州李先生家藏訣 三道峯詩 西溪李先生家藏訣 土亭家藏訣 李土亭秘訣 甲午夏穀詩	鑑訣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歷代王都本宮數 三韓山林秘記 無學傳 五百論史 五百論史秘記 道訛秘訣 鄭北窓秘訣 南師古秘訣 南格菴山水十勝保吉之地 西山大師秘訣 杜師聰秘訣 避藏處 華岳路程記 北頭流路程記 九宮變數法 玉龍子記 慶州李先生家藏訣 三道峯詩 西溪李先生家藏訣 土亭家藏訣 李土亭秘訣 甲午夏穀詩	鑑訣 歷代氣數本宮陰陽訣 歷代王都本宮數 三韓山林秘記 無學秘傳 五百論史 五百論史秘記 道訛秘訣 鄭北窓秘訣 南師古秘訣 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地 西山大師秘訣 杜師聰秘訣 避藏處 華岳路程記 北頭流路程記 九宮變數法 玉龍子記 慶州李先生家藏訣 三道峯詩 西溪李先生家藏訣 土亭先生家藏訣 李土亭秘訣 甲午夏穀詩	鑑訣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歷代王都本宮數 三韓山林秘記 無學傳 五百論史 五百論史秘記 道訛秘訣 鄭北窓秘訣 南師古秘訣 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地 西山大師秘訣 杜師聰秘訣 避藏處 華岳路程記 北頭流路程記 九宮變數法 玉龍子記 慶州李先生家藏訣 三道峯詩 土亭家藏訣 李土亭秘訣 西溪李先生家藏訣 甲午夏穀詩	鄭堪錄 三韓山林秘記 玉龍子訣 無學訣 土亭家藏訣 浪仙子訣 西窓棟樑記 虛庵訣 東老年記論 東翁論 兩湖論 西庵訣 格庵訣 吳道人訣 龔啞翁訣 鄭淳翁訣 鄭柳問答 杜師忠秘訣 肅廟夢中詩 西溪李先生家藏訣 九宮變數法 八域門 諸訣解

19) 호소이 하지메 본 『鄭鑑錄』의 경우, 부록에 실린, 秘訣, 一行師說, 玄知先見, 鄭淳翁訣, 草庵訣, 浪仙訣, 玉龍子詩, 玉龍子青鶴洞 등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20) 김용주 본 『鄭鑑錄』은 《정비록》, 《운기귀책》, 《요람역세》, 《동세기》, 《동차결》, 《감결》, 《감인록》 등 7서(七書)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감결》에 수록된 24편 만을 예시하였다.

② 『秘訣輯錄』(奎7568) 「西溪李先生家藏訣」²¹⁾

壬戌²²⁾ 以火民撓 先自湖南

靑鼠 野杏接木 旧闕重修

赤牝 異人南來 一境騷動 似倭非倭 以和為主

赤鼠 嘆²³⁾氣太甚 人民多死

黑馬 馬馳長走 六白八黑 酉戌其月 天將西來

黑羊 汾水秋風 旋旗日暖 忠宣忠惠 何事走鼠

靑猿 寅卯辰巳 長城崩頽 兼之以兵 哀哉蒼生

靑鷄 千里江山 三分何為

赤狗 英雄相爭 風風雨雨 緣此時變 失農可畏

赤猿²⁴⁾ 樑燕負薪 魴魚赤尾

黃鼠 年來之歉 猶年不足

黃牛 世事擾擾 死亡頗多

白牝 禍被喬木 有誰獻忠

白兔 大中小魚 俱亡無歸²⁵⁾

黑龍玄蛇²⁶⁾ 靑衣白衣 並出東南

論其時變 甚於壬辰 眞人渡南²⁷⁾ 順受天分²⁸⁾ 戌亥之年 鷄龍峯興 寅卯辰歲²⁹⁾ 統一倭境³⁰⁾ 自此以後 鄭運通泰 甲辰乙巳 文物彬興 論其大運 八十年亂 舉數論之 二十四年 論其小運 二十年兵³¹⁾ 九年之歉 七年之水 三年病疫³²⁾ 十戶餘一 異狀世難

21) 필사본인 교토대 가와이문고(河合文庫)본 『鄭鑑錄』에는 「李西溪先生秘記」로 제목이 되어 있다.

22) 야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본 『眞本鄭堪錄』에는 ‘黑狗’로 되어 있다.

23) 현병주본 『非難鄭鑑錄眞本』과 김용주본 『鄭鑑錄』(鑑訣)에는 嘆으로 되어 있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본 『鄭鑑錄』과 동양문고본 『鄭鑑錄』과 야나기타 분지로본 『眞本鄭堪錄』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가와이문고본 『鄭鑑錄』에는 吐으로 되어 있다.

24) 가와이문고본에는 丁亥로 되어 있다.

25) 호소이 하지메본에는 歸가 婦로 되어 있다.

26) 가와이문고본에는 辰巳之年으로 되어 있다.

27) 가와이문고본에는 渡南이 南渡로 되어 있다.

28) 야나기타 분지로본, 가와이문고본에는 分이 命으로 되어 있다.

29) 가와이문고본에는 寅卯之年으로 되어 있다.

30) 현병주본에는 倭境이 南方으로 되어 있다.

31) 가와이문고본에는 十二年兵으로 되어 있다.

非兵非刃 非旱則水 非凶則病 惟我後裔³³⁾ 往尋吉地 吉地吉運 前後一規 牛性在野 利及田田 殺我者誰³⁴⁾ 小頭無足 活我者貧³⁵⁾ 穴下弓身 星辰所照 可免塗炭 山東三南³⁶⁾ 福星遍照 申酉之旱 猶可免也³⁷⁾ 戊亥之凶 亦³⁸⁾不可免 人棄我取 人去我留 俗離顛項 吉則吉矣 先亡後生 後入最³⁹⁾可 何必顛項 近地亦可 山仙⁴⁰⁾之間 飢饉不入 小山小溪 藏踪⁴¹⁾何如⁴²⁾ 若入其地 俠⁴³⁾字村尋 八物長生 扶人救命 有生則還 次間⁴⁴⁾維麻 黃永之間 可活萬家⁴⁵⁾ 清南文北⁴⁶⁾ 亦可藏踪 沃川鎮岑 星照往往⁴⁷⁾ 當此之世⁴⁸⁾ 夫耕婦織 勿爲仕宦 勤力農業 自生之道 勿爲自棄 宅必生耳⁴⁹⁾ 產必至貧 貧者何畏 往處⁵⁰⁾皆旺 入山雖好 何如路傍 東山雖好 何似良田 田兮田兮 知者知矣 一曰食也 然後可生 莫苦貧寒 勿從富去 富則多死 橫罹可畏 不識其理 追富亦易 畧陳來事 以曉後生 一念在茲 湏從此示⁵¹⁾ 【先生居於沙器幕矣 其隣居崔生來言曰 壬辰之禍可避 而此後二百餘年 必有大難 畧條⁵²⁾列以遺後如何 先生曰 汝自言之 云云⁵³⁾】 54)

32) 가와이문고본에는 疫이 病으로 되어 있다.

33) 가와이문고본에는 본 구절 앞에 “若此荒歲 無所益生”이 삽입되어 있다.

34) 가와이문고본에는 誰가 凶으로 되어 있다.

35) 현병주본과 야나기타 분지로본에는 貧이 誰로 되어 있다.

36) 가와이문고본에는 南이 面으로 되어 있다.

37) 가와이문고본에는 申酉之旱 猶可免也 구절이 누락되어 있다.

38) 가와이문고본에는 亦이 誰로 되어 있다.

39) 가와이문고본에는 最가 取로 되어 있다.

40) 가와이문고본에는 仙이 仁으로 되어 있다.

41) 야나기타 분지로본에는 踪이 跡으로 되어 있다.

42) 가와이문고본에는 如가 似로 되어 있다.

43) 가와이문고본에는 俠이 獸로 되어 있다.

44) 가와이문고본에는 間이 向으로 되어 있다.

45) 가와이문고본에는 家가 人으로 되어 있다.

46) 현병주본, 김용주본, 야나기타 분지로본에는 北이 化로 되어 있다.

47) 호소이 하지메본, 현병주본, 김용주본, 야나기타 분지로본, 가와이문고본에는 往往星照로 되어 있다.

48) 가와이문고본에는 世가 時로 되어 있다.

49) 가와이문고본에는 耳가 利로 되어 있다.

50) 가와이문고본에는 處가 處로 되어 있다.

51) 가와이문고본에는 畧陳來事 以曉後生은 누락되어 있고, 一念在茲 湏從此示은 보필되어 있다.

52) 호소이 하지메본과 현병주본에는 條가 條로 되어 있다.

53) 김용주본에는 云云如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祈雨祭臚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901).
- 『秘訣輯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7568).
- 『鄭鑑錄』 (東洋文庫, VII-3-99).
- 『鄭鑑錄』 (교토대 가와이문고, テ-4 199718).
- 『諸家祕說』 (버클리대 아사미문고 33.5).
- 『識書類聚』 (東洋文庫, VII-3-114).
- 細井肇. 『鄭鑑錄』. 동경: 自由討究社, 1923.
- 柳田文治郎. 『眞本鄭堪錄』. 경성: 이문당, 1923.
- 金用柱. 『鄭鑑錄』. 경성: 한성도서주식회사, 1923.
- 玄丙周. 『批難鄭鑑錄眞本』. 경성: 우문관서회, 1923.
- 안춘근 편. 『鄭鑑錄集成』.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 황현. 『매천야록』. 김준 옮김. 서울: 교문사, 1994.
-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재해와 기근」. 『이화사학연구』 43 (2011): 71-129.
- 김신희. 「‘병자호란’의 기억과 ‘남사고 예언」. 『한국문화』 92 (2020): 197-227.
- _____. 「‘남사고 예언서’의 성립과 확산」. 『한국문화』 94 (2021): 251-290.
- 이준호·이상임. 「조선시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과 공옥(空獄) 사상의 교정적 의미 고찰 -소빙기 ‘경신대기근’을 사례로」. 『교정담론』 11 (2017): 269-296.
- 최종성. 「아나기타 분지로(柳田文治郎) 본 《진본 정감록》의 검토: <정감록(鄭堪錄) 편을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40 (2022): 1-26.
- _____. 「정감록 백년왕국론과 조선후기 위기설」. 『역사민속학』 61 (2021): 7-35.
- Jorgensen, John. *The Foresight of Dark Knowing Chōng Kam nok and insurrectionary prognostication in pre-modern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8.

54) 가와이문고본에는 다음과 같이 다소 변형된 형태의 문장이 문두에 배치되어 있다. “先生居息於沙器幕矣。其隣崔生來言曰，壬辰之禍可避也。此後二百年後，必有大亂，畧條其事以遺其後生如何。先生曰，汝自言之。曰云，已上不錄遺之矣。”

Abstract

A Study on the Prophetic Terms and Narratives of *Prediction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Choi, Jong Seong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nalyzes the narrative texts of *Prediction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西溪李先生家藏訣) and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context of the secret prophetic terms of the book. First, *Prediction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is strongly apolitical in that it contains recommendations to ensure the simpl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the face of the crisis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duration of the states, changes in the dynasties, and the replacement of the capitals seen in general *Jeonggammok* literature. Second, *Predictions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is used as a keyword in the prophetic narratives, suggesting a famine as a disaster to come in the future. This is understood as the result of reflecting the historical misfortunes experienced in the year of Gyeongsul (庚戌, 1670) and Sinhae (辛亥, 1671) in the text. Third, *Predictions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presents Sodumujok (小頭無足) and Hyeolhagungsin (穴下弓身), which have opposite meanings, and idealizes symbolic words that imply farmland, fields and cows, etc. as spaces of good luck. This article identifies the meaning of the Sodumujok, which has been difficult to interpret so far, as a '囟' character, and presents its academic evidence both literally and semantically.

Keywords : Prediction, Seogye, *Predictions Hidden in the House of Master Yi of Seogye*, *Jeonggammok*, Sodumujok, Hyeolhagungsin